

<서평>

## *How to Read the Bible*

Marc Zvi Brettler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5, 384p.

김창주\*

1. 브레틀러(Marc Zvi Brettler)는 월담(Waltham)에 위치한 브렌다이스 대학(Brandeis University)의 유대교와 고대 근동 연구의 책임자이자 교수이다. 이 대학은 특정한 종교적인 색채를 표방하지 않고 있으나 미국 전역 유대인들의 헌신적인 모금 활동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주 유대인들은 매 해 학술 서적에서 여행, 요리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서적을 수집하여 대규모 책 할인 판매를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이 브렌다이스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기부된다. 브레틀러는 이런 전통에서 자라고 이 대학에서 학부와 대학원에서 고대 근동과 유대교를 공부하였으며 이후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서 수학한 후 모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저작<sup>1)</sup> 가운데, 공동 편집한 스타디 바이블 *The Jewish Study Bible*<sup>2)</sup>은 유대인 사회에서 독자층이 상당히 넓다.

---

\* 한신대 강사, 구약학

1) *The Book of Judges: Old Testament Readings* (London: Routledge, 2001); *Biblical Hebrew for Students of Modern Hebrew*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1); *The Creation of History in Ancient Israel* (London: Routledge Press, 1995); *God is King: Understanding an Israelite Metaphor, Supplement to the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76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이 책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유대인 학자로서 역사 비평적인 방식으로 구약성서의 입문서를 썼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저자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뿐 아니라 독자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의 저자와 청중들이 이해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방법으로 소개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여러 평자들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유대교의 평신도를 위한 교재로 적합하다. 물론, 일반 독자들이나 신학교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셋째, 저자 자신이 언급한대로 이 책은 구약성서에 대한 ‘유대인의 감각’을 갖춘 입문서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브레틀러는 역사 비평적인 연구의 결과가 가져올지 모르는 충격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럼에도 브레틀러는 역사 비평 연구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유대인으로서 전인미답의 구약성서 입문서를 저술하였다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2. 저자는 우선 역사 비평 연구에 관한 유대교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동시에 과학적인 연구의 뿌리가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율리우스 벨하우젠(Julius Wellhausen)이 1878년 성서 학계를 뒤흔들 *Prolegomena to the History of Ancient Israel*을 내놓았을 때 가톨릭교와 유대교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일부 유대교 학자들은 호기심이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랍비와 연구자들은 오경이 네 가지의 자료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벨하우젠의 학설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보였던 것이다. 특히, 당시 유대교 보수 계열의 솔로몬 셰흐터(Solomon Schechter)는 기독교의 고등 비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즉, 그는 “Higher Criticism-Higher Anti-Semitism”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벨하우젠의 접근 방식은 지능적이며 제국주의적인 발

---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상의 유대교 박해이자 반셈족주의”라고 강하게 반격하였다. 더 나아가 “새 연구방법은 유대교의 과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주지 않는다.”고 경고했다.<sup>3)</sup> 세흐터의 반론과 입장은 유대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이후, 거의 현재까지 유대인 학자들은 역사 비평 성서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전통 때문인지 브레틀러는 ‘역사 비평적’(historical critical)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근거는 합리적이다. 즉, 역사에는 단순히 해석 이상이 함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평적’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성서와 성서의 핵심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해체하려는 의도나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그럼에도 브레틀러는 이 방법론이 과학적이며 중립적이기 때문에 유대교에도 통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책의 저술에 뛰어든 것이다. 이 책은 전체 2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1-4장은 구약성서의 분류 방식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최근까지 발굴된 고고학적인 자료들로 인한 성서 연구의 변화 등을 기술하고 있다. 다음 5-26장까지 각 장마다 특정한 책을 조명하는 데 전체보다 주제에 집중하여 역사 비평 방법으로 분석한다. 마지막 27장에서 어떻게 경전이 되었는지를 서술하고 후기 부분에서 결론을 짓는다. 여기에서 저자는 두 가지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성서가 신학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해석된 신학적인 문서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문서가 복잡한

3) 사실 벨하우젠의 자료설이 등장하기 이전의 긴 역사가 유대교 내부에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이븐 에즈라(Abraham ibn Ezra, 1089-1164)는 모세의 오경 저작설에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야의 단일 저작을 지지하지 않았다. 한편, 바룩 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전통적인 성서 무오설에 제동을 걸고 일반 서적과 같이 불완전한 책이라며 성서의 특권을 벗기고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유대교 성서 읽기는 근대적인 의미의 성서 연구에 기반을 오래 전부터 닦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Baruch Spinoza, *Tractatus Theologico-Politicus* (Leiden: Brill, 1991).

전승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역사 비평 연구의 특징적인 요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의 각 장에서 구체적인 보기를 제시하면서 방법론적인 활용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학자에게 창세기 1-3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저자의 주장대로 성서 읽기의 첫 걸음은 문단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누어 읽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팔레스틴과 디아스포라의 전통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서 두루마리를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읽는 전통이 있었다.<sup>4)</sup>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틴에서는 전체 토라를 154등분, 디아스포라에서는 53-54등분하여 매주 안식일에 읽게 하였다. 창세기 처음 단원은 창세기 1:1에서 6:8까지이며 이것을 3년 주기로 나누면 창세기 1:1-2:3은 첫 해에, 2:4-4:26은 이듬해에, 그리고 5:1-6:8은 마지막 3년 째에 읽게 된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세기 1-3장은 2:4을 기준으로 양분된다. 따라서 브레틀러는 유대교의 랍비들도 창세기 1-3장을 통일된 이야기로 간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친다.<sup>5)</sup> 이런 점에서 저자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를 역사 비평 연구의 결과와 전통적인 유대인 견해가 맞닿은 것으로 보고 있다.

4) 이런 유대 전통은 사해 문서에서도 발견된다. 내용의 길이에 따라 ‘파르샤’(פרשה), ‘페투하’(פתוחה), ‘세투마’(סתומה) 등으로 불린다. 이것은 후에 장(章), 절(節), 문단으로 구분하는 데 기초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오경을 53-54 등분하여 매 안식일에 낭송하였다. N. Sarna, *Genesis: The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PS, 1989), xiii.

5) 카수토(U. Cassuto)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사용된 신명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그것은 역사 비평의 주장처럼 저자와 시대의 차이가 아니라 YHWH는 이스라엘에 관련되었을 경우에, 엘로힘(Elohim)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변증할 때 쓰였다는 것이다. Cassuto, *Documentary Hypothesis* (Jerusalem: Magness Press, 1961); 『반문서설』, 배제민 편역 (서울: 기독교문서, 1978).

서로 다른 두 창조 이야기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지점에서 편집자의 손을 거쳐 현재의 형태로 고정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브레틀러는 질문을 제기한다. 왜 이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결합하였단 말인가? 네 복음서를 나란히 놓듯 병렬로 연결할 수는 없었을까? 저자는 기원 후 2세기 타티안(Tatian)의 디아테사론(Diatessaron)을 소개한다. ‘4복음서 공관’으로 번역할 수 있는 디아테사론은 여러 자료가 결합된 오경처럼 네 복음서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한 것이다. 말하자면 오경에는 시간과 공간이 서로 다른 네 가지 자료(J, E, D, P)가 결합되어 있다는 자료설의 논리가 현대인들의 눈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문서 결합 방식이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창세기 1:1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2:4a에서 끝났음을 밝히는 일은 문서의 층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된다.

문서의 단층을 구분하였다면 다음 순서는 그 자료의 문학적인 장르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석은 장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본문의 의미를 분석하려면 마치 게임의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본문의 특별한 규칙을 찾아내야 한다고 본다. 성서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창세기의 서두에는 우주의 창조, 각종 식물과 동물의 출현, 그리고 인류의 창조 등 다양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연 과학이나 우주의 역사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다. 유대교에서 ‘처음에’(בראשית)라고 불린 이 책 이름이 불행히도 기독교에서는 ‘창세기’(Genesis)로 불리면서 ‘세상의 처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뜻으로 오해하게 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브레틀러는 창세기 1-3장을 문자적인 의미의 과학이나 인류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 읽을 것을 강조한다. 만약 창세기 1-3장을 우주 기원에 관한 과학으로 이해한다면 ‘두 가지 다른 창조 이야기의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신화는 진실을 함

축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주장할 수 있다. 더구나 신화는 최초의 기원(original)을 가리키기도 하는 반면, 어떤 표준(standard)을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브레틀러는 신화를 유일한 의미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고 창세기 1-3장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것도 이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이 책은 유대인의 감각에 맞추고 있다. 그러나 ‘유대인의 감각에 맞춘 책’이라는 저자의 의도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저자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브레틀러가 유대교 독자를 상대로 하고 있다는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책의 전개 과정이 대체로 유대교 성서 “타나크”(Tanakh)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기에 예외는 있다. 즉, 타나크의 마지막 책인 역대기가 열왕기를 다룬 13장과 예언서를 소개하는 15장 사이인 14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통적인 유대교의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즉,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오경’ 대신에 ‘토라’를, ‘히브리 성서’(Hebrew Bible) 대신에 ‘성서’(Bible)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한다. 셋째는 특히 8-10장에서 성서의 율법과 제의에 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할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저자는 구약성서에 대한 전통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독자층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자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문화의 텍스트를 읽기 위한 안내이자 규범으로서 입문서라고 할만하다. 보통 신학자들이 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여 출판한 책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반대로 평신도를 위한 글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주력하기보다 종교적인 관점, 즉 신앙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자의 머리에는 이 양자의 간격을 최소화하려는 의욕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책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브레틀러는 각 책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특정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역사 비평 연구를 설득하려는 두 가지 효과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역사 비평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때문에 독자들이 성서의 역사성과 권위를 의심하게 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성서 자체에서 해결되지 않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자의적인 풀이가 아니라 비평적인 연구를 통한 학자들의 설명이 논리적이며 합리적이라는 점이다.

경건한 유대인 학자 브레틀러는 (기독교의) 역사 비평적 연구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여 유대교 관점에서 연구하였다는 점이 저자의 공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 비평 연구에 대한 자성과 비판, 새로운 모색을 탐구하는 시점에 이 방법론을 수용한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기독교의 주석이 지금까지 유대교의 엄청난 유산과 노력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간과해 온 점을 비추어 볼 때 저자의 시도는 획기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독자와 후학들은 유대교의 해석과 전통이 역사 비평 연구의 관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4. 성서 해석에 있어서 ‘유일한’ 방법론은 없다. 일찍이 유대교에는 이에 대한 두 랍비의 상반되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2세기 중반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었던 랍비 아키바(Aqiba)와 랍비 이스마엘(Ishmael)의 논쟁이 그것이다.<sup>6)</sup> 즉, 이스마엘에 의하면 성서는 사람이 사용하는 글과 말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반복이 생기거나 길어질 수 있다. 한편, 아키바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한 마디도 불

4) Burton L. Visotzky, *Reading the Bible: Making the Bible a Timeless Text* (New York: Schocken, 1996), 17.

필요한 말은 없으며 장황한 말투나 반복된 경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아키바 논리가 우세한 가운데서도 이스마엘의 주장이 완전히 묻혔던 것은 아니다. 아키바의 입장이 최근까지도 유대교의 성서 해석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브레틀러의 이 책 *How to Read the Bible*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과감한 도전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즉, 유대교의 전통적인 성서 읽기에 기독교의 비평적인 성서 연구를 과감하게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기독교의 역사보다 오래되고 다양한 유대교의 성서 해석에 19-20세기에 꽃을 피운 기독교의 근대적인 성서 연구 방법론을 초대하여 양자 사이에 대화가 가능하도록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 책이 역사 비평 연구에 정통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내용이 없어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유대교적인 감각을 갖춘 저자가 비평적인 관점에서 구약성서를 안내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아직도 비평적인 연구를 도외시하는 분위기가 엄존한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 학자가 내놓은 구약성서 연구서 *How to Read the Bible*이 한국 신학계에 읽힐 수 있기를 바란다.

“성서는 원전(sourcebook)이다. 그러나 나와 공동체가 읽고 해석하고 선택하여 경전(textbook)이 된다.”